

〈발표3〉

노인학대의 실태와 원인에 관한 조사 -한국과 일본의 비교-

김동선(동양대학대학원)

1. 목적

최근 노인학대가 마스크등을 통해 대두되고 있고, 한국과 일본에서 노인학대방지관련법이 시행 또는 관련조항이 신설되었다. 본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노인학대의 실태, 발생요인에 대해 비교하고 고찰을 한다.

2. 조사방법

본조사는 한국에서는 국내의 18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하였고, 조사기간은 2007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이고, 2006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의 노인학대중에서 최근사례를 우선대상을 선정하였다. 개인사례 10사례를(단, 한군데 5사례)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의뢰하였다. 조사항목에 대한 답안은 종사자가 자유선택식으로 기입하였다. 회수율은 175사례중 100사례가 회수되어 57.1%였다. 조사항목은 페이스시트, 학대기간, 수발기간, 학대유형, 학대요인, 개입등에 관한 내용이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인학대 가해자, 피해자, 기입자를 알수 없도록 무기명기입을 의뢰하였다.

일본에서는 전문지, 기관지등에 노인학대방지에 대해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시정촌을 무작위로 80군데를 선정해 노인학대관련부서에 설문지를 우편으로 의뢰하였다. 기입자는 노인학대관련부서의 직원이나 지역포괄센터의 직원이었다. 각부서나 센터에 2007년 6월 21일부터 8월 30일까지 의뢰하였고, 2007년 6월 15일까지의 노인학대중에서 최근사례를 우선대상으로 5사례를 선정의뢰하였다. 조사항목에 대한 답안은 자유선택식으로 하였고, 80군데중 43군데 185사례가 회수되어 46.3%였다. 조사항목은 한국의 조사와 같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무기명기입을 의뢰하였다. 통계분석은 SPSS15.0을 이용하였고 크로스분석의 χ^2 검정을 실행했다.

3. 조사결과

1) 기본사항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 연령, 치매, 동거자, 피학대기간, 수발자에 대해 분석을 했다. 노인학대 피해자의 성별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양국에서는 여성이 많은 결과를 보였다. 한국에서는 남

성31.0%, 여성69.0%을 차지하였으며 일본에서는 남성20.0%, 여성80.0%였다. 한국은 일본보다 여성이 적고 남성이 많은 결과를 보였고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P<0.05).

노인학대 피해자의 치매 유무에 대해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치매없음이 50.6%, 치매있음이 49.4%였고 일본은 치매없음이 39.3%, 치매있음이 60.7%로 유의차는 0.087였다.

노인학대피해자를 75세를 기준으로 75세미만과 75세이상으로 분류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75세미만이 45.0%, 75세이상이 55.5%였고 일본은 75세미만이 29.9%, 75세이상이 70.1%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P<0.05).

<표1> 페이스시트

		일본		한국		합계		χ ² 치 P
		빈도	%	빈도	%	빈도	%	
학대피해노인의 성별	남성	37	20.0	31	31.0	68	23.9	*
	여성	148	80.0	69	69.0	217	76.1	
학대피해노인의 연령2구분	75세미만	55	29.9	45	45.0	100	35.2	*
	75세이상	129	70.1	55	55.0	184	64.8	
학대피해노인의 치매유무	무	64	39.3	43	50.6	107	43.1	np
	유	99	60.7	42	49.4	141	56.9	
학대피해노인의 동거자3구분	아들가족과 동거	100	54.3	57	57.6	157	55.5	*
	노부모만의 생활	40	21.7	31	31.3	71	25.1	
	그외	44	23.9	11	11.1	55	19.4	
학대피해노인의 피학대기간2구분	2년미만	77	58.8	36	38.7	113	50.4	* *
	2년이상	54	41.2	57	61.3	111	49.6	
수발자(부양자)2구분	아들의 가족	71	49.3	56	68.3	127	56.2	* *
	그외의 가족	73	50.7	26	31.7	99	43.8	

χ²검정 P *≤0.05 **≤0.01 np유의차 없음

노인학대 피해자의 동거상황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아들가족과의 동거가57.6%, 노부모만의 생활이 31.3%, 그외가11.1%였고, 일본은 아들가족과의 동거가54.3%, 노부모만의 생활이 21.7%, 그외가 23.9%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노인학대 피해자의 학대를 받은 기간을 2년을 기준으로 분류한 결과, 한국은 2년미만이 38.7%, 2년 이상이 61.3%였고, 일본은 2년미만이 58.8%, 2년 이상이 41.2%로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1).

노인학대 피해자의 수발자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아들가족이 68.3%, 그외 가족이나 친족이 31.7%였고, 일본은 아들가족이 49.3%, 그외 가족이나 친족이 50.7%였고, 유의차가 인정되었다(P<0.05).

2)학대행위자(중복응답)

노인에게 학대를 행한 사람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배우자가 노인학대를 한 경우와 한국이 9.0%인 반면, 일본은 16%이고(유의차 낮음), 아들이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이 72%인 반면, 일본은 49.7%였다(P<0.001). 딸이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이 27.0%인 반면 일본은 16.2%이고 (P<0.05), 며느리가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이 34.0%인 반면, 일본은 13.5%였다(P<0.001). 부모가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은 0.0%이고 일본은 0.5%였고(유의차 낮음), 형제자매가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은 2.0%이고, 일본은 1.1%였다(유의차 낮음). 사위가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이 8.0%인 반면 일본은 8.0%였고(P<0.01), 손자가 학대를 행한 경우는 한국이 9.0%이고, 일본은 5.4%였다(P<0.05).

<표2> 학대행위자(중복응답)

		일본		한국		합계		χ ² 치 P
		빈도	%	빈도	%	빈도	%	
배우자	아니다	154	83.2	91	91.0	245	86.0	np
	그렇다	31	16.8	9	9.0	40	14.0	
아들	아니다	93	50.3	28	28.0	121	42.5	* * *
	그렇다	92	49.7	72	72.0	164	57.5	
딸	아니다	155	83.8	73	73.0	228	80.0	*
	그렇다	30	16.2	27	27.0	57	20.0	
며느리	아니다	160	86.5	66	66.0	226	79.3	* * *
	그렇다	25	13.5	34	34.0	59	20.7	
부모	아니다	184	99.5	100	100.0	284	99.6	np
	그렇다	1	0.5	0	0.0	1	0.4	
형제자매	아니다	183	98.9	98	98.0	281	98.6	np
	그렇다	2	1.1	2	2.0	4	1.4	
사위	아니다	183	98.9	92	92.0	275	96.5	* *
	그렇다	2	1.1	8	8.0	10	3.5	
손자	아니다	175	94.6	91	91.0	266	93.3	*
	그렇다	10	5.4	9	9.0	19	6.7	
그외	아니다	172	93.0	97	97.0	269	94.4	np
	그렇다	13	7.0	3	3.0	16	5.6	

χ²검정 P *≤0.05 **≤0.01 ***≤0.001 np유의차 없음

3) 학대의 유형(중복응답)

학대의 유형별로 비교한 결과(중복회답), 한국은 심리적학대, 방임과 방기,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 성적학대의 순이었고, 일본은 심리적학대, 신체적학대, 방임과 방기, 경제적학대, 성적학대의 순이었다. 심리적학대는 한국72.7%, 일본60.5%이었고(P<0.05), 방임과 방기는 한국53.5%, 일본40.0%였다(P<0.05).

<표3> 학대의 유형(중복응답)

		일본		한국		합계		χ ² 치 P
		빈도	%	빈도	%	빈도	%	
신체적학대	아니다	76	41.1	52	52.5	128	45.1	np
	그렇다	109	58.9	47	47.5	156	54.9	
심리적학대	아니다	73	39.5	27	27.3	100	35.2	*
	그렇다	112	60.5	72	72.7	184	64.8	
성적학대	아니다	183	98.9	94	94.9	277	97.5	*
	그렇다	2	1.1	5	5.1	7	1.5	
경제적학대	아니다	121	65.4	66	66.7	187	65.8	np
	그렇다	64	34.6	33	33.3	97	34.2	
방임·방기	아니다	111	60.0	46	46.5	157	55.3	*
	그렇다	74	40.0	53	53.5	127	44.7	

χ²검정 P *≤0.05 np유의차 없음

신체적 학대는 한국47.5%, 일본58.9%이었고(P<0.063), 경제적학대는 한국33.3%, 일본34.6%였다(유의차 낮음). 성적학대는 한국5.1%, 일본1.1%였다(P<0.05). 심리적학대, 성적학대, 방임과 방기는 한국이 많고 신체적학대, 경제적학대는 일본이 많은 결과를 보였다.

4) 노인학대의 원인(중복응답)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해 한국과 일본을 비교한 결과, 20항목중 유의차가 인정된 것은 8항목이었다.

「학대 피해자와 행위자의 과거의 인간관계」가 한국은 57.1%, 일본은 39.6%이고($P<0.01$), 「피해자의 성격 인격」이 한국은 38.8%, 일본은 24.4%였다($P<0.01$). 「행위자의 부양과 수발에 대한 책임감」은 한국은 22.4%, 일본은 10.4%이고($P<0.01$), 「학대 행위자의 피학대 경험」은 한국은 12.2%, 일본은 1.6%였다($P<0.001$). 「학대 행위자의 이혼문제」가 한국은 18.4%, 일본은 2.7%이고($P<0.001$), 「학대 행위자의 음주 문제」가 한국은 33.7%, 일본은 12.1%였다($P<0.001$). 「학대 피해자와 행위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는 한국은 22.4%, 일본은 9.3%이고($P<0.001$), 「가족, 친족간의 비협력 무관심 불화」는 한국은 66.5%, 일본은 21.4%였다($P<0.001$).

고찰

노인학대 피해자에는 한국과 일본에는 여성이 많고, 75세 이상인 후기노인이 75세 미만의 전기노인 보다 많았다. 노인학대 피해자 중, 치매가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가 한국에서는 크지는 않지만, 일본에서는 치매가 있는 노인이 많았다. 노인학대 피해자중, 후기노인인 한국보다 일본이 많은 것은 후기노인 인구가 많은 것과 관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후기노인은 신체적인 원조는 물론 경제적인 원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노인학대로 연결 될 수 있다.

치매인구를 보면, 한국에는 보건복지부의 2007년 치매노인추계자료에 의하면 38만명(8.3%)으로 예측하였고, 일본은 「我が国の精神保健福祉」 2001년에 의하면 2005년에는 188만명(7.63%)로 예측하였다. 전인구의 치매노인의 비율은 한국과 일본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일본에서는 학대를 받은 노인들이 치매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학대를 받은 기간은 한국이 일본보다 오랜기간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결과를 보였다. 아들이나 며느리의 부양과 수발기간과 사회적인 서비스의 보급, 노인학대 예방책의 보급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의 행위자의 성별을 보면, 남성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일본이었다. 그중에는 아들의 비율이 가장 많았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아들이 비율이 많았다. 그러나, 며느리의 노인학대가 일본보다 많은 것이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노인학대 피해자가 아들이나 며느리하고의 동거가 많은 것으로 보아 부모와 아들, 부모와 며느리사이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학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부양이나 수발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부모와 자식간에 견해차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기대와 실망속에서 학대로 연결 된다고 볼 수 있다.

노인학대의 요인에 있어 한국에서는 가족의 무관심, 비협력, 불화가 많은 비율을 차지 하고 있는데에도 노인학대예방센터에서는 가족이나 친족한테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결과를 보였다. 노인학대를 해결 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노인학대는 한가지의 발생요인이 아닌 여러가지의 요인속에 가족구성원이 처해 있는 환경과의 연결을 하고 서포터 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는 노인학대의 요인에 있어 노인학대 행위자의 성격과 인격이 많았고, 당사자와 상담을 한 경우가 많았다. 상담을 통해 개호보험과의 연결과 양호자의 수발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기초적인 활동으로는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고 계몽운동을 시작으로 사회적인 서비스의 지원책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은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지만 선별적인 개념의 서비스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보편적인 개념

의 서비스를 하루 빨리 확대해 노인학대의 방지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은 가족간의 불화가 노인학대에 긴밀한 관계가 있어 노인을 둘러싼 환경이 중요하다. 당사자와 가족 뿐만을 위한 가족만의 지원이 아니라 노인학대를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노인 학대대응이나 예방이 필요하다. 노인학대 관련기관은 노인복지 관련기관, 사회복지 관련기관, 주민등과 연학회라든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조기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